

광주·전남, 구직자 12만명 “일이 없다” ... 중소기업들은 “사람이 없다”

## 양질의 일자리 부족 ‘미스매치’ 가속화

지자체 기업유치 다각적 노력

나주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

지역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야

광주·전남에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중소기업은 중심으로 인력난을 겪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 2013년 10월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인력 공급,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지역 구직자와 기업은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구직자 수는 지난 2012년 9만1191명, 2013년 10만9367명에 이어 지난해 12만4624명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10만명이 넘는데도 지역 기업들은 해마다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청의 노동력조사 결과, 광주·전남 소재 기업들은 ▲2012년 1만3919명 ▲2013년 1만4090명 ▲지난해에도 1만5279명의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등 구인난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지역 기업들이 채용에 실패한 1만4559명(92.5%)은 3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이처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넘쳐나는데도 기업이 인력난을 겪는 이유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을 불러온 이유는 구직자들의 ‘임팩’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에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청이 지역 기업

291곳을 채용 실패의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의 기대와 맞지 않았기 때문 29.8%(87곳) ▲구직자 기피 직종이기 때문 24%(70곳) ▲기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및 자격을 갖춘 지원자 부족 12.7%(37곳) 등으로 파악됐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 스스로 근로자 처우가 낮아데다 모집 업종 자체도 기피 직종이기 때문에 구인난을 겪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 1만1000곳을 조사한 결과, 광주·전남 기업들이 지급하는 평균 급여는 낮았지만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은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자 평균 월급은 ▲광주 249만3000원 ▲전남 278만원 ▲서울 320만원 ▲울산 295만2000원인데 월 평균 근무시간은 광주 186.5시간 ▲전남 188.7시간 ▲서울 178.9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역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에서는 이처럼 가속화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함께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입주 기업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전력 등 입주 기관, 협력업체 등이 지역 인재 채용에 적극 나서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광주발전연구원 관계자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선 자치단체의 기업 유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 강화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며 “특히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관과 협력업체가 채용시 지역 할당제를 도입하거나 기업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등 구직자와 기업, 자치단체,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한국, 이라크 꺾고 아시안컵 결승진출

26일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2015 AFC 아시안컵 준결승 한국 대 이라크 경기에서 이정협이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한국은 이라크에 2-0 승리를 거두고 27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다. ▶관련기사 20면

/연합뉴스

## 박대통령 “지방교부세·교육재정 교부금 개혁”

지자체 “교부세율 상향” 요구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 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개혁을 통한 재정확충을 주문한 것에 대해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의 취약성을 감안한 ‘교부세율 상향 조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올 첫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런 패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개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교육환경이 크

게 바뀌고 있는데 내국세가 늘면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증가하게 되는 현행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하는지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진기 광주시 예산담당관은 “복지쪽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세율에 복지예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교부금이 줄어드는 추세였는데, 앞으로 복지부분

의 반영을 검토한다고 하니 정부 지원 재정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꼭 짚은 지방 재정을 감안해 지방교부세 등의 비율이 대폭 상향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구조 개혁은 필요하지만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로 교육재정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아직 교육투자가 부족한 낙후된 교육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로 내비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고수들의 명강연... 지식·교양·지혜의 향연

## 호남의 리더를 모십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기 졸업식 및 2기 입학식 모습

리더스 아카데미 1·2기 주요 강사



최진석 임홍길 진준권 박경철 이영돈

##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3기 원생 모집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리더들을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모집합니다.

광주일보는 오는 3월부터 지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3기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63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는 지역 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강생들에게 구축해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고품격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 00명
- 지원자격 :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2월
- 강의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 8시30분(호텔식사 제공)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5년 2월 12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 통보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70)

光州日報社

광주, 노점상과의 전쟁 ▶6면



다도해는 ‘다리 박물관’ ▶18면

**광신대학교 2015년도**  
**학부 편입 (062-605-1114)**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신학대학원 편입 (062-605-1115)**  
 원서접수 1/26(월)~2/2(월)



주름줄기에 맞서는 강력한 힘이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린다

피부 탄성이 무너지면 잔주름이 깊고 넓게 뻗어 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시작됩니다.  
 깊어지는 주름줄기를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  
 인삼 성분을 캡슐화한 진세나스피어™가 피부 본연의 탄성을 강화시켜  
 힘있게 치오르는 매끄럽고 탄력 있는 피부로 가꿔줍니다.  
 더욱 강력해진 안티에이징 효과로, 주름을 이기는 피부의 힘을 경험하세요.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설화수 자여진에센스

**Sulwhasoo**

\*유명백화점이나 약국에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sulwhasoo.kr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료 무료)